

## 연탄의 추억

연탄파동과 오일쇼크 그리고 유신의 에너지 정책

한국에서 연탄의 전성기는 박정희 통치기와 대략 맞먹는다. 연탄이 공장 및 산업 시설에서 사용된 것은 1910년대부터, 일반 가정에서도 쓰인 것은 1920년대부터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연료의 주종은 신탄(薪炭)이었다. 1960년 당시만 해도 에너지 소비 중 나무와 숯의 비중이 63퍼센트를 상회했던 반면 석탄의 역할은 27퍼센트 남짓에 불과했

다. 석탄 소비가 본격화되는 한편,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 성형한 구멍탄', 즉 연탄이 가정용 연료로 각광받은 것은 1960년대부터다.

## 비현실적 가격통제가 빚어낸 제1차 연탄파동

아마 지금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탄에 얽힌 추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찬바람이 돌면 연탄부터 들이던 기억, 리어카로 지게로져 나르던 기억, 연탄 가느라 한밤중에 오들거리며 방을 빠져나가던 누군가에 대한 기억. 겨울철이면 매일이다시피 연탄가스 중독 기사가 났고, 1년에도 여러 번 탄광 매물 뉴스가 전해졌으며, 그때마다 조마조마 구조 속보가 전달되곤 했다. 1960~1970년대 한때는 광산 사고로 해마다 7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을 정도다. 사망자만도 연간 100명을 훌쩍 넘었다.<sup>1</sup> 박정희가 죽고 몇 달 후에는 사북에서 대규모 쟁의 소식이 들려왔다. "해묵은 회사 측의 저임금 푸대접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반발" 때문에 폭발한 광부들이 도로를 일절 차단한 채 "사북 일원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거리를 휩쓴 일대 파란이었다."<sup>2</sup> 이 사건은 주동자 수십 명이 계엄령하의 군사재판에 회부됐다는 무시무시한 소식으로 마감됐다. 이 모든 기억에도 불구하고, 기름보일러나 도시가스 난방이 주종이 돼버린 지금, 연탄은 '그때 그 시절'의 감미로운 향취마저 띠고 있다.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벌어진 '사북사태'는 광부들의 삶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일러는 사건이었다. '광부 700여명 유혈난동'이라는 제하의 1980년 4월 24일자 '동아일보' 머릿기사.

증기기관 발명 이후 한때 석탄은 국가의 부강을 좌우하는 열쇠였다. 그러나 지금도 화력발전의 상당 부분을 수입 유연탄에 의존하는 처지임에도 한국에서 석탄이나 연탄은 이미 지나간 시절의 화제처럼 보인다. 박정희 시절부터 이미 그러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박정희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주축은 매장량 풍부한 국내 무연탄을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하면서 그 축이 유류 대체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1966년 한 차례 연탄파동을 겪은 후에는 더욱 그랬다.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다. 물가인상률이 경제상장물만큼이나 가파르던 당시, 정부에서는 물가인상률을 8퍼센트선에서 동결한다는 방침하에 먼저 연탄 가격 통제에 나섰다. 시중가격이 15원대였음에도 8원이라는 고시가격을 책정하고 판매상

을 압박하는 밀어붙이기식 통제였다. 비현실적 고시가격은 당연히 공급 위축을 불러왔다. 산지에 무연탄이 쌓여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들은 연탄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굴렀다. 암거래가 성행해 외곽에서는 연탄 가격이 고시가의 세 배를 훨씬 웃돌 정도로 치솟았다고 한다. 시장주의자들은 "경제질서를 무시한 통제 정책이 부작용만 양산했다"라며 혀를 찼다.

매마침 정유시설을 마련해 국내 석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 후였다. 정부는 연료를 전적으로 유류로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국영기업과 대기업에 유류 대체를 의무화하다시피 했고, 다방이나 접객업소에까지 기름 사용을 강권했다. 이른바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의 전환이었다. 산업화·도시화의 여파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정책 전환이 시급한 형편이기도 했다. 연평균 30퍼센트 가까이 전력 수요가 뛰어들고 있던 때였다. 특히 연탄파동 이듬해인 1967년 말에는 전력난이 심각했다. '한집 한등 끄기 운동'에 이어 하루 총 7시간으로 송전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을 정도다.<sup>3</sup>

정부에서는 국내 무연탄만으로는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밖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나마 30~40년이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중동 산유국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석유는 싸고 무진장한 자원처럼 보였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주유종탄'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었다. 1966년 총 16퍼센트에 불과했던 총에너지 공급 대비 석유의 비율은 1972년 52퍼센트로 급증한다.

## '연탄파동'으로 오일쇼크를 극복(?)하다

그러고는 한동안 "정유공장을 여기저기 짓고 석유를 흔하게 만들었다."<sup>4</sup> 석유공사 외에 호남정유와 경인에너지가 설립돼 과다경쟁으로 석유파이가 더 내려가기도 했다. 연탄은 아직 신식 연료여서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면서 이제 막 연탄아궁이가 농촌에도 보급되던 와중이었다. 그럼에도 '주유중탄' 정책의 파급효과는 빨랐다. 도시의 살 만한 가구에서는 벌써 연탄아궁이를 없애고 기름보일러를 들이기 시작했다. 1974년, 두 번째 연탄파동이 닥친 것은 이렇듯 유류 대체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던 무렵이다.

한국이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즈음 국민총생산은 1973년에 13.2퍼센트, 1974년에 8.1퍼센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제4차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갈등을 기회로 국제 원유 가격이 네 배로 폭등했음을 생각하면 성공적 방어였다.<sup>5</sup> '공황'이라 불러야 할 정도의 충격이 세계를 휩쓸던 시절이었다. 막 성장세를 탄 개발도상국 중 상당수가 이로써 돌아키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에 오일쇼크의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1967년 전력난 때를 연상시키는 에너지 제한 정책이 속속 도입됐다. 음식점과 다방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평일 아침 TV 방송이 폐지됐다. 국내 항공 노선 중 일부가 중지되는가 하면 난방용 유류 공급도 제한되었다. 서울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두 배로 늘어났다. 추운



1973년 겨울을 강타한 오일쇼크로 석유파이가 30퍼센트나 오르고 일부 도시에서는 연탄 생산과 판매가 제한되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연탄을 담기 위해 대야나 팔래판 등을 이고 가게 앞에 줄지어 선 시민들의 모습.

출근길에 10분 기다리던 버스를 20분 기다리게 된 외에, 아예 버스가 멈춰버린 일마저 있었다. 1973년 11월 어느 날, 답십리 방면 시내버스 80여 대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종일토록 운행을 하지 못했다.<sup>6</sup>

1974년의 연탄파동은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그 오일쇼크가 서민들의 삶에 어떤 얼룩을 남겼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현실적 가격통제 때문에 시작됐던 1966년의 연탄파동과는 달리 1974년의 연탄파동은 실제 공급량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조짐은 그 전해부터 보였다. 오일쇼크의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연탄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제철에 앞서 미리 연탄을 사다 말려놓으면 열효율이 한결 높다고 선전했다. 그렇잖아도 파동을 겪은 바 있는 서민들은 1974년에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연탄을 사 나르기 시작했다. 유가인상을 겁내 기름보일러를 다시 연탄아궁이로 바꾸는 집마저 있었다. 몇 년간의 주유증탄 정책으로 채탄량이 제자리걸음을 하던 무렵, 7월에 벌써 연탄은 바닥날 조짐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연탄값을 올리고 탄을 소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장당 22원이었던 가격을 3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중량은 0.5킬로그램 줄였다. 그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7월 20일에는 일종의 배급제를 고시했다. 전국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연탄카드를 발급, 1회당 구매량을 제한한 것이다. 그 밖에 요식업소나 접객업소 등에서의 연탄 사용을 금지하고 각급 학교 겨울방학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되었다. 오일쇼크 와중이었음에도 기름값을 10퍼센트 이상 인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겨울이 깊어가도록 사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연탄카드제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새마을운동으로 연탄아궁이 설치가 독려된 데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낙엽 채취마저 금지된 다음이었기 때문이다. 마을별로 연료 공동채취장을 지정했지만 땀감도 모자랐고 연탄은 더더구나 부족했다. 연탄 운반선이 끊긴 섬 지역에서는 연료를 구하려면 물로 나셔야만 했다. 도시에서 30원인 연탄이 울릉도에서는 장당 80원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새마을'에서 모처럼 마련한 연탄아궁이를 지피지 못해 "시부모

와 아들 내외가 한방에" 자야 하는 형편이었다.<sup>7</sup> 일부 지역에서는 연탄아궁이를 뿔갑아궁이로 환원시키라는 시책마저 하달되었다. "1년에 아궁이를 세 번이나 뜯어고쳤다"라는 하소연은 아마 사실 그대로였을 것이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서울이라고 편안치는 않았던 것 같다. 연탄은 여전히 부족했으며, 한 번에 수백 장을 들이는 대신 찢끔찢끔 수십 장을 들일 때마다 집안은 김땀투성이가 되곤 했고, 탄이 작아져 아궁이 간수 횡수가 늘어난 데다 품귀 현상의 당연한 여파로 저질 연탄이 많아져 사정이 더 고약했다. 1966년 파동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공급 자체에 급급했던 정부는 저질탄 문제를 애써 외면했다. 불량탄이 적발되었을 때도 번번이 경고 조치만으로 넘어가곤 했다. 덜 마르고 더 작고 열효율도 낮은 불량 연탄 때문에 고생하던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그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던 에너지 정책이며 산업 정책이며 또 새마을운동 등을 한꺼번에 환기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 치솟는 분노로 연탄 트럭을 덮친 주부들

1966년과 1974년의 연탄파동에서 집단적 항의는 거의 없었다. 산발적 불평불만이 들끓었을 뿐이다. 1974년 10월 경기도 시흥에서 있었던 주부들의 항의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집단행동으로는 유일하다. 당시 안양시에 속했던 시흥군은 시흥대교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연탄파동이 일어난 1974년 10월 15일 경기도 시흥의 주부들이 대도시 위주의 연탄 공급에 항의하면서 연탄집게를 들고 나와 시흥대교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접한 지역이었다. 다 같이 힘들었던 연탄파동 외중에도 지역별 불균형은 심각해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 외에도 대도시 밖의 거주자라면 더욱 힘겹게 그 고초를 겪어내야 했다. 대도시에서는 연탄 우선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밀반출을 엄격히 금지했다. 시흥대교에도 서울시 연탄 밀반출 단속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양시내 연탄값이 장당 100원까지 치솟았다는 그해 가을, 주부들은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10월 15일, 시흥대교의 검문소 앞으로 주부들이 몰려들었다. 500여 명에 달하는 숫자였다. 이들은 “시의 반출 단속을 해제하라”라

는 구호를 내걸고 한 시간 넘도록 시위를 벌였다. 별 진전이 없자 이 중 100여 명이 가까이 있는 한일연탄공장으로 몰려갔다. 마침 서울 지역으로 공급할 연탄을 트럭에 싣는 중이었다. 검문소 앞 시위 때부터 손에 손에 연탄집게를 들고 있던 주부들은 트럭에 달려들어 연탄을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트럭을 가로막아 출발을 저지했다. 집안일을 하던 차림새 그대로, 상당수는 아이를 포대기로 업은 모습이었다. 정치적·사회적 변동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주부, 그야말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수백 명이 때를 짓고 연탄집게를 흔들며 때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은 당시 사회에 적잖이 충격을 준 모양이다. 이를 후 안양에서는 50~60대 주부 여럿이 동사무소를 찾아가 연탄을 달라며 항의하다 즉심에 넘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으론 옥박지르고 한편으론 달랜 까닭인지 사태는 더 번지지 않은 채 일단락됐다. 그러나 1974년은 주부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한 해였다. 영부인 육영수가 총탄에 맞아 숨지고 대형건물인 대왕코너 및 뉴남산호텔 화재로 각각 수십 명이 숨지는 등 각종 사건이 잇따랐지만, 평범한 살림을 더욱 압박한 것은 오일쇼크의 여파로 가중된 물가 상승과 품귀였다. “석유류 82퍼센트, 전기료 30퍼센트, 사립대학 등록금 20퍼센트” 어떤 주부가 꼼꼼히 정리해둔 대로 연초에 이렇게 포문을 터뜨린 물가 인상은 한 해 동안 멈출 줄 몰랐다. 연탄이나 설탕은 값의 고향을 막론하고 구하기 자체가 힘들었다.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구멍 난 가계부를 매우던” 주부들에게 “74억 원에 달하는 박영복 사건 (……) 상류층 부인 보석 밀매 사건” 등이 던져